



◆ 가이드북을 들고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포항동초 관종원 교관(가운데).

“사회·교육·환경 여기에 다 담았어요”

포스코교육재단 사회과제 가이드북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세상’ 발간

가구당 1.22명의 세계 최저 출산율, 자살률 1위, 다문화, 안전 불감증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교육과 연계해 10여년간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해 온 교육 프로그램을 한데 모은 책이 발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있도록 돼 있어 일선 학교에서 사회문제 관련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관련 자료는 일선 학교와 공유를 위해 포항제철동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
교육적 차원에서 해법 모색
환경과피, 안전 불감증,
생명존중, 다문화, 저출산 문제 다뤄

다. (www.pocholdong.es.kr)

5대 사회과제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종원 포항제철동초등학교 교관은 “사회문제 해결은 결국 교육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한 예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만 명이 넘는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사망 원인 중 자살이 가장 많아 청소년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식 습득하기에 앞서 어릴 때부터 생명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교육현장에서 이뤄진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학교 교육을 통해 문제의식과 뚜렷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1990년 초등학교 교재

‘깨끗한 생활’을 발간해 산하 초등학교에서 정규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한 질씩 배포해 활용토록 했으며, 1992년에는 환경교재 “엄마, 지구가 죽어간데요”를 발간해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환경 보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사회적·교육적 차원에서 대단한 파급효과가 있었으며 교육계로부터 호평을 받은바 있다.

현재는 5대 사회과제를 정규 커리큘럼으로 편입해 운영할 뿐만 아니라, 12개 학교가 일제히 4월 첫 번째 주 수요일과 10월 두 번째 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30분간 ‘캠페인 날’을 정해 환경과피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계몽활동을 벌이고, 6월 첫 번째 주를 ‘5대 사회과제 행사 주간’으로 정해 글쓰기, 표어, 포스터, 가족신문, 사진공모, 모의재판, 토론 등의 대화와 문예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교육재단이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사회과제의 교육적 접근과 해결운동은 교육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예로, 지역 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 및 환경교육, 인구교육(저출산·고령화)에 대해 교장·교감 연수회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재단 및 해당학교 주관으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전국의 저명인사와 교육관계자를 초청한 세미나를 개최해 계도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관종원 기자 kny@eduyonhap.com

맛있는 김장 봉사!

인천 인수초등학교 인수사랑봉사단, ‘사랑의 김치 전달’ 실시

지난 12월 5일 인천 인수초등학교(교장 이기찬) 급식 조리실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 김치를 전달하기 위한 ‘김장’ 봉사가 실시됐다.

10명의 ‘인수사랑봉사단’의 어머니들이 중심이 된 이번 봉사는 ‘녹색 어머니회’, ‘참사랑 동아리 모임’, ‘도서 사서 도우미’ 등 인수초등학교의 여타 어머니회가 자발적으로 모여 ‘함동봉사’를 이뤘다.

전날인 4일 200여 포기 배추를 다듬는 것을 시작으로 당일인 5일 오전 6시 한 명도 빠짐없이 학교 급식조리실에 모인 회원들은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손발이 착착맞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포아 말했다.

이번 봉사를 진행한 ‘인수사랑봉사단’의 박영자(43) 회장은 “까다롭게 고른 재료 선정 과정에 서부터 수일에 걸친 준비기간 동안에도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 “무농약의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주변 곳곳에서 받은 지원과 관심이 힘이 되었다”는 말로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점심시간에 맞춰 마무리된 김장 김치는 큰 통에 담겨 이웃에 전달될 체비를 마쳤다.

새로운 김치를 곁들여 봉사하신 어머니들·교직원·어린이들이 함께 한 점심은 소박했지만 어느 때보다 푸짐해 보였다.

연신 “맛있다”는 말로 이날의 노고를 격려한 이기찬 교장은 어



◆ 인수봉사단 회원들과 일일봉사에 나선 인수초등학교 어머니들이 김치 담그기에 여념이 없다.

머니들의 순수한 봉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수사랑봉사단’은 지난 9월 발대식과 함께 추석맞이 송편 전달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교내 형편이 어려운 11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정 안팎의 환경정화활동과 김치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종원 기자 kny@eduyonhap.com



◆ 김장을 마친 후 봉사에 나선 어머니들과 인수초등학교 이기찬 교장(사진 맨 오른쪽)이 사랑의 하트를 그려보고 있다.

우리의 삶을 브랜드·삼성

Family Samsung

사랑하면 할수록
삼성이니키

조금 더 친절히 함께...
신호도 꼭 지킵게...
언제나 내 옆에 내가 있다는 걸
잊지 않게...

자동차보험 대표 브랜드 삼성이니키

1588-5714 삼성이니키